

경기도, 다음달 남북 공동 '파주~개성 마라톤' 추진



경기도가 북한과 함께 파주에서 개성까지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14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4월 27일, 남북 공동 'DMZ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에 이 같은 제안을 했고, 북한의 공동개최 동의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회는 5km, 10km, 하프코스, 풀코스 등 4개 코스로 나눠 진행할 계획으로 대회 참가자 중 상당수가 임진각이나 도라산역을 출발해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이나 개성시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대회 예정일이 5주가량 남은 상태에서 북측의 동의서가 아직 오지 않은 데다가 동의서가 도착하더라도 이후 통일부, 유엔사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대회가 개최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경기도, 파주~개성 달리는 DMZ 마라톤 추진



경기도가 파주에서 북한 개성까지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으로 'DMZ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며 현재 북측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북측의 동의서가 도착하면 통일부와 국방부, 유엔군사령부 등과 함께 구체적인 대회 계획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경기] 파주~개성 마라톤 추진...성사 여부 미지수

경기도가 북한과 함께 파주에서 개성까지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다음 달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북측의 공동개최 동의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2만여 명이 참여해 대회를 진행할 방침인데, 북측의 동의서 도착이 지연되고 있어서 개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수도권 주요 뉴스] 경기도, 다음달 남북 공동 '파주~개성 마라톤' 추진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 경기도, 다음달 남북 공동 '파주~개성 마라톤' 추진

경기도가 북한과 함께 파주에서 개성까지 달리는 마라톤 대회를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는 다음달 27일, 남북 공동 'DMZ 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북한에 이 같은 제안을 했고, 북한의 공동개최 동의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